

남양주시 진접읍 6·25 참전 용사에 72년 만 훈장 전달

1951년 양구 참전 故 김정환 일병 유공자 발굴사업으로 최근 확인돼

1951년 6·25전쟁 당시 공적을 인정받아 결정된 무공훈장이 착오로 전수되지 못하고 72년 만인 지난 26일 유족 품으로 전달된 사연이 밝혀졌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1951년 2월 입대해 강원도 양구지구 전투에 참여해 공을 세운 김정환 일병이 공을 인정받아 그해 11월 화랑무공훈장 수훈이 결정됐으나 긴박한 사정으로 받지 못한채 세월이 흘렀다가 정부의 유공자 발굴 사업에 의해 최근에야 확인이 돼 유족에게 전달됐다.

수훈 당사자인 당시 일병인 김정환씨는 전쟁 후 수훈을 받지 못한 채 경상북도 영주에 거주하다 지난 2013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일병에 대한 훈장 수여식은 26일 남양주 진접읍남행정복지센터에서 윤경배 센터장이 아들인 김성국씨(남양주 진접읍 거주)에게 전수했다.



6·25전쟁 당시 공적을 인정받아 결정된 무공훈장을 받지 못하고 72년 후인 지난 26일 유족인 김성국씨(오른쪽)에게 진접읍남행정복지센터 윤경배 센터장이 훈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김 씨는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더욱 기뻐하셨겠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훈장을 대신 받게 돼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유공자들의 값진 희생 덕분이며, 훈장을 전달해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원원 기자

■ 새 얼굴

“공동 목표를 위해 최선 다할 것”

신경호 FC안양 단장

“FC안양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8대 FC안양 단장으로 선임된 신경호(36) 단장(사진)은 지난 27일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FC안양 최대로 구단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신 단장은 “FC안양 단장으로서는 직무수행



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구성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안양시에서 체육청소년과와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등 주요 부서를 거쳐 기획경제실장을 끝으로 2020년 12월 말에 퇴직했다.

한편 FC안양은 지난 3일부터 태극 후아련에서 1차 전지훈련 중이다.

“규정·원칙 입각해 기관 운영할 것”

하영훈 안양교도소장

“열린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바람직한 공공기관의 모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제59대 안양교도소장으로 취임한 신임 하영훈(56) 소장(사진)은 “규정과 원칙에 입각



한 기관운영과 질서와 인권에 조화로운 수용관리, 그리고 직원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0년 교정간부로 임용돼 청주교도소장과 교정본부 보안과장, 의정부교도소장과 서울남부구치소장 등을 지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7일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과천시 제공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방문

위기 청소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7일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이날 이 차관은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꿈드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둘러본 뒤 센터 운영 현황과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신계용 과천시 시장과 센터 지도사, 상담사 등과 함께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차관은 이날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고, 진로를 탐색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 체계의 촘촘한 마련과 함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청소년이 대한민국 미래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범 기자

김포 신양중, 글로벌리더 영어캠프로 학습격차 해소

맞춤형 강의·체험... 영어 능력 향상

김포교육지원청 신양중학교가 최근 3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에서 신양 차세대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신양중학교의 역점사업으로 사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다문화 및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공부 습관을 형성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에 캠프 기간 지질, 생태, 환경 교육을 영어로 진행해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하고, 맞춤형 강의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학생들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화산학의 교과서 ‘수월봉’을 탐방하기에 앞서, 수월봉에 얽힌 ‘녹고의 눈물’이라는 설화를 듣고 직접 ‘수월’과 ‘녹고’가 되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등 사전학습으로 과자를 활용한 지층모형 만들기를 통해 과학 용어와 원리를 이해하기도 했다.

여기에 학생 대부분 어렵게 느껴졌던 용어와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과학 수업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으며 즐거워 하는 등 수월봉 지층을 탐방하며 자신이 만든 지층모형과 수월

봉의 지층을 비교하며 재미가 더했다. 특히 학생들은 다음으로, ‘알자’, ‘나가지’, ‘만들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알나만’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알고’, 바다에 ‘나’가 파도에 밀려 해변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면서 ‘플로깅’, ‘미치코밍(해변을 뜻하는 비치(beach)와 빗질을 뜻하는 코밍(combining)이 합해진 말)’을 체험도 벌였다.

학생들은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껍데기와 색유리 조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을 고민하기도 했다.

영어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제주도의 화산지형, 환경에 대해 영어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보람찼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더구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한 학생은 “제주도에 와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좋았다. 아름다운 제주도를 보니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며 뿌듯해했다.

신양중학교 김월섭 교장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차세대 글로벌리더 영어 캠프 참여를 통해 더욱 성장해 차세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용남 기자

한국남동발전, 폭설·한파 대응 전력수급 비상태세 현장 점검

전력수급전망·발전설비 운전현황 등 노사합동 점검

한국남동발전 김회천 사장이 강한 한파와 잇따른 폭설에 따른 전력수급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지난 27일 분당발전본부를 방문해 노사합동 현장대응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김회천 사장과 장진호 노조위원장은 발전소 현장 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전망, 발전설비 운전현황 및 고장 시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으며 중앙제어실에 방문해 교대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회천 사장은 “요즘 수도권 지역에 한파가 만만치 않아 전력수요 급등에 대비해 발전기의 기동실태 없이 안정적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남동발전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월 28일까지 김회천 사장을 비롯해 안전기술부사장, 신사업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경영진과 본사 처실장들이 각 사업소를 방문해 현장안전경영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 김회천 사장 등이 분당발전본부 발전기 상태를 점검중이다. 한국남동발전 제공

김대성 기자

한국남동발전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연임 ‘성공’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시대 열 것”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연임 선출됐다.

이에 따라, 박승원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제10대 회장직을 수행해 온 데 이어 제11대 회장으로서 2025년 1월까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대표해 직무를 총괄하게 됐다.

박 시장은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뛰듯이 평생학습도시 현장과 협력해가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도 더 높고 더 멀리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 것이다”며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시대를 열고 평생학습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모두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11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임원은 박승원 광명시장(이사, 회장)을 비롯해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이사), 최대호 안양시장(이사), 김보라 안성시장(이사), 이재호 연구구청장(이사), 김미경 은평구청장(감사),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감사)으로 구성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허브로 도약’을 비전으로 학습도시 네트워크 협력과 관계자 역량강화,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전국의 지자체장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모여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와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정책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됐다.

현재 189개 지방자치단체와 74개 지역교육지원청 등 263개 기관의 기관장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제7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의 팔로워업 국제 컨퍼런스’ 개최,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 MOU 체결 등 국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현장의 정책을 발굴해 전국의 평생교육 사례를 교류하는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를 개최하는 등 전국을 넘어 세계 평생학습도시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원규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연임 선출됐다. 광명시 제공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군포시지회, 성금 700만원 군포시에 기탁

지역내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

군포시는 지난 26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군포시지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금 700만원을 기탁받았다.

전용환 군포시지회장은 군포시의 소외계

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해 전달하게 됐으며 “이번 나눔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순철 기자